

8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지표개선에 6일째 상승..다우 0.3%↑	뉴욕 증시가 25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음. 다우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하루만에 다시 상승세로 복귀했음.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 온 주택과 소비 부문의 지표 개선이 직접적인 호재가 되었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연임 결정도 투자심리를 안정시켰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30.01포인트(0.32%) 상승한 9,539.2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25포인트(0.31%) 오른 2,024.23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2.43포인트(0.24%) 오른 1,028.00을 각각 기록했음.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또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음. S&P/케이스-윌러가 집계하는 2분기 주택가격이 전분기대비로 3년만에 첫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3개월만에 반등하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을 낙관하게끔 만들어 주었음.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재신임한 점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음.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가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고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72달러대로 하락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했음.
소비자 신뢰지수 3개월만에 상승	컨퍼런스보드는 8월 소비자신뢰지수가 54.1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3개월만에 상승한 것이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47.9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임. 소비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좋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6개월 후의 경제 및 재정 상태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상황지수는 23.3에서 24.9로 올랐고 소비자기대지수는 63.4에서 73.5로 상승,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음.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48.5%에서 45.1%로 낮아졌음. 반면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에서 4.2%로 높아졌음.
오바마, 버냉키 연준 의장 재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버냉키 의장의 배경, 기질, 용기, 그리고 창조력으로 인해 또 다른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버냉키를 연준 의장에 재지명했음. 버냉키의 두번째 연준 의장 임기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내년 2월부터 시작됨.

제목	주요 내용
백악관·의회 경제전망 하향조정	미국 백악관이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했음. 의회도 실업률 상승이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올해 미국경제의 위축세가 당초 전망보다는 커지고, 내년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더질 것으로 전망했음. 의회예산국(CBO)도 미국의 실업률이 2010년중 평균 10.2%까지 치솟고, 세입감소와 세출확대로 향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음.
유가, 연중최고치 경신 후 72달러대 하락	국제 유가가 25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배럴당 72달러대로 하락했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했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2.32달러(3.1%) 하락한 72.05달러에 마감했음. 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장 중 연중최고치인 배럴당 75달러대로 상승하기도 했음.
中 인민銀 "온당하고 충분한 유동성 보장"	중국 인민은행은 25일 "금융 시스템에서 온당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대출 증가세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음.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08년 연례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언급했음.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음. 앞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안정적이지 않고, 많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것을 고려해 현재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소비자체감경기 7년來 최고치.. 자산가격↑ 영향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다섯 달 연속 상승하며 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109)보다 5포인트 상승한 114를 기록하며, 지난 200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 정귀연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증가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다만 경기회복 속도를 경기체감도가 못따라간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음.
가계 빚 다시 늘었다..700조원 돌파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9년 2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697.7조원으로 2분기중에 14.1조원 늘었음. 전분기보다는 2.1%,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수치. 6월말 기준으로는 가계신용잔액은 이미 7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임. 올해 초 불경기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 빚 규모는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이와 같이 가계 빚이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구매가 증가한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지난 2분기에 늘어난 가계 빚 14.1조원중에 주택담보대출은 13.8조원이었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나 할부구매로 인한 증가분이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